

영상의 심판대에 오른 권력과 법

〈의뢰인〉 〈쇼생크탈출〉 등... 법에 맞선 인간존엄의 가치 그려내

인류가 성문법과 재판제도를 가지기 시작한 이후 창작된 소설에는 수많은 재판장면과 변호사, 검사, 피고인 등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사회의 갈등구조, 즉 소설 속 주인공들의 갈등구조가 곧 법적인 문제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가치규범으로 제한되거나 평가되기에는 인간의 삶이 너무 복잡해졌고,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관리수단이 인간의 삶에 '법'이라는 강제규약을 들이대는 것이므로, 인간의 삶을 주요 주제로 삼는 소설과 영화 속에 '법'이 종종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의의 갈등구조 다루

영화발명 이후 대부분의 법률영화는 자연스러운 정의의 '법적 실현'보다는 법과 정의의 갈등구조를 다루는 경향이 많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그리섬의 동명소설을 조엘 슈마처 감독이 영화로 만든 〈의뢰인〉(The Client)은 어린 소년이 한 변호사의 자살을 목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피아와 정부라는 엄청난 권력집단의 비밀을 알게 된 소년은 온갖 주위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책에서 배운대로 변호사를 찾아가다. 레지 러브(수잔

세런든)라는 여자 변호사는 단돈 1달러를 들고 찾아온 소년을 돕기로 결심한다.

소설의 긴박감을 훼손하지 않고 영화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 〈의뢰인〉은 두 가지 이야기 축을 가지고 전개된다. 여성과 소년이라는 약자계층과 마피아와 정부라는 권력계층의 대결로 영화는 전개된다.

물론 그 두 계층 사이에는 '정의'라는 신성불가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의를 구현할 '법'이 한없이 초라하고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변호사와 소년은 정의를 구현한다. 역설적이지만 '법'의 억압 속에서 '법'을 세워주는 것이다. 단순한 미국식의 해피엔딩으로만 보기에는 다소 씩씩한 여운을 남기는 영화이다.

권력자가 디자인할 수 있는 법의 허구와 나약함을 보기 좋게 비웃는 영화가 있다. 바로 〈쇼생크 탈출〉(The Shawshank Redemption)이다. 스티븐 킹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칸느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팀 로빈스와 무게 있는 조연 모건 프리만의 연기가 소설의 인물묘사를 극대화시켜 주고 있는 영화이다.

은행원이었던 앤디 듀프레인은 어느날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된다. 불리한 정황을 뒤

집지 못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앤디는 법의 나약함과 한계를 절감한다.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청년이 실제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앤디는 교도소장에게 탄원하

지만 결국 그 청년만 살해되는 것으로 끝난다. 앤디는 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억울한 구급의 상황에서 구하기로 결심한다. 탈출을 마음먹은 것이다.

그는 교도소장의 탈세를 도와주면서 신임을 얻는다. 자기를 보호해주지도 못한 법을

영화발명 이후 대부분의 법률영화는 자연스러운 정의의 '법적 실현'보다는 법과 정의의 갈등구조를 다루고 있다. 이들 영화는 권력자가 디자인할 수 있는 법의 허구와 나약함, 법의 냉혹함과 그로 인한 인간파괴 등을 고발하고 있다.

이용해 탈출의 기반을 마련한 그는 결국 탈출에 성공한다. 이 영화는 증거 재판주의, 재심청구권, 형사보상제도 등 법의 원칙들이 돈과 권력으로 인권의식을 잃어버린 법조인들에 의해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앤디의 탈출장면을 보며 대다수의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 법이 그렇고 법조인이 그렇고 교도행정이 그렇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영화 〈일급살인〉(Murder in the First)을 보면 이 말은 신빙성이 없다. 1940년대 엘카트레스라는 잔혹한 감옥을 폐쇄하게 했던 이른바 '헨리 영사건'을 소재로 한 덴

고든의 실화소설을 마크 로코 감독이 영화로 만든 이 작품은, 눈물이 있다면 흘러야 할 순간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법의 냉혹함과 그로 인한 인간파괴를 다루고 있다.

평범한 청년이 우울증에 걸린 여동생을 위해 단돈 5달러를 훔친 죄목으로 체포된다. 그가 돈을 훔친 시골상점은 간단한 우편업무를 취급하는 곳이었다. 청년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연방정부의 돈을 훔친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엘카트레스에 수감된다. 당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던 알 카포네 같은 범죄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설치한 잔혹한 감옥에 단돈 5달러를 훔친 사람을 수감하면서 사건은 전개된다.

결국 헨리 영(케빈 베이컨)은 탈옥에 실패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하감방에 3년 동안 수감된다. 지하감방에서 나온 그는 탈출 계획을 밀고한 동료들 200명의 죄수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일급살인죄로 기소된다. 이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 제임스 스템필(크리스찬 슬레이터)은 교도소의 잔혹한 상황을 하나씩 밝혀낸다. 자기들만을 위한 법을 존중하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신출내기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권을 역설하고 결국 여론의 힘으로 교도소는 폐쇄된다. 단돈 5달러의 절도범은 일벌백계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위법은 하찮게 여기는 권력과 법의 속성을 이 영화는 고발한다.

끊임없이 소재화되는 '법'

이밖에도 〈필라델피아〉(필리프 리프) 〈피고인〉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등의 영화에서 법은 꾸준히 거론되고 질타당하고 때론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각국의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가치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려면 너무나 멀고 어렵다. 물론 법이 인간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해준다는 부정할 수 없는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법이 권력과 돈에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신뢰는 무너진다.

인간의 삶을 다루는 소설과 영화는 법이 인간존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까지 끊임 없이 '법'을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허연 기자



영화 〈쇼생크 탈출〉의 한 장면.